

㉘ 전략적 글로벌 AI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AI 3강’의 꿈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AI 혁신 허브’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순히 국내 AI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인재·기술·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회원국의 AI 준비도를 평가하고 정부·기업·학계·중소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공동 혁신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K-AI’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AI 발전 비전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다. 자원의 분산과 전략의 부재는, 대한민국의 AI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가장 큰 병목이 되고 있다. 인재와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투자는 파편화되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글로벌 투자 재원은 국가 AI 전략 방향과 연계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K-AI 기업의 해외 진출은 체계적인 지원 전략 없이 개별 기업의 고군분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와 연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성과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니셔티브’ 아래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파편화된 재원은 ‘글로벌 AI 공동투자’ 중심으로 묶고, 산재된 글로벌 협력 채널은 ‘GCAIO(글로벌 CAIO)’ 중심의 외교 플랫폼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APEC 회원국 간 AI 정책 모범사례와 혁신 생태계를 상호 공유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을 위한 검증 체계와 역량 구축을 추진하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며 기존 정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APEC 중심 AI허브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 정책 권고사항

-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AI 인재와 스타트업 및 빅테크들과 APEC 지역의 지식·문화·언어 및 오픈소스를 통합한 오픈소스 소사이어티 구축을 위해 기존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를 고려하여 비자·창업 공간지원부터 AI인프라·데이터 지

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아태지역 AI 허브 특화지구(가칭)’ 및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조성 계획을 ’26년 2분기까지 마련하고 국가AI전략위와 정기 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행을 관리한다.

- 과기정통부는 기획예산처,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AI 스타트업 및 산업계의 AI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국가의 글로벌 AI 아젠다 확보, 빅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AI 협업관계 구축 등 AI 사업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유관부처별 AI 사업에 대한 펀드·기금 등 현황을 ’26년 2분기까지 파악한다. APEC AI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공공·민간·지역 부문의 AI 기본역량과 활용도를 높여 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을 개선하고 산업 전반의 AI 혁신·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AI 공동투자’ 관련 조성 계획을 ’26년 4분기까지 마련한다. 이 펀드·기금 등은 국가AI전략위의 전략 방향에 따라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실행하며 국가AI전략위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관리 협의체’를 통해 반기별로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와 협력하여 ‘투트랙’ 기반의 AI 분야 양·다자 협력체계와 APEC AI 이니셔티브 실행계획을 ’26년 4분기까지 추진하고 ’30년 4분기까지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트랙1)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EU 등 가치공유국과는 AI 핵심 기술 공동 연구, 인력 교류를 넘어 공동 거점 구축, 공동 사업화 및 제3국 공동 진출까지 추진한다. (트랙2) 지속가능발전 협력으로 아세안 등 신흥국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대상으로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지역문제 해결형 AI 프로젝트(기후, 보건, 재난, 교육, 고령화 등)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국가 역량별 차등화된 협력모델을 운영한다.
-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및 산하기관(KOTRA)과 협력하여 APEC AI 이니셔티브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K-AI 기업의 글로벌/APEC 진출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26년 4분기까지 수립한다. 이를 위해 ①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② AI 분야에 특화된 차별화된 진출 전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나아가 주요 산업 이슈별로 국가들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 및 APEC 국가들과의 협력 및 영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

-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부, 행안부, 인사처와 협력하여 '26년 2분기까지 주요국에 AI 거점 공관을 지정하고, 거점 공관별로 'GCAIO(글로벌 최고 AI 책임자)'와 AI 전문관을 운영한다. GCAIO는 산재된 글로벌 협력 채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외교부는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 산업부와 협력하여 GCAIO와 AI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기존의 역내 우리 경제·산업·과기분야 정부 산하기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AI 지형 변화를 신속히 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종합체계인 '글로벌 AI 외교 플랫폼'을 '26년 2분기까지 마련한다.